



# 封入体肝炎이 발생하다

원 송 대

(연암축산전문대 교수)

## (제 13성) 封入体肝炎 (Inclusion Body Hepatitis)

이병은 1963년 보고 이래 세계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도 1972년 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봉입체간염에 관한 케이스리포트가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이 병명은 닭의 간세포에 핵내 봉입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Inclusion Body Hepatitis의 약자로 IBH라 부르고 있다.

이병의 발생은 육용계종에서 5~7 주령경에 발생하는 경향이 높으며 바이러스로서 경 Adenovirus이다.

살이 잘진 닭이 뚜렷한 임상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하겠다.

빈혈성으로 안면이 창백하고 원기가 없으며 털을 세우고 항문주위가 지저분한 것이 외부증상이다.

이 병에 걸린 닭을 해부해 보면 간장에서 특징적인 병변을 볼 수 있겠다. 첫째 색깔이 적갈색 내지 황색을 나타내며 약간 부어 있다.

둘째로서는 간장표면에 출혈점이 많이 보이고 시간이 경과된 것은 백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로 가슴과 다리 근육, 전신의 피하조직, 장관의 장막면을 보면 출혈이 보이

는 것이다.

그리고 대퇴골을 절단해보면 정상에서는 적색인 골수가 황갈색 또는 황백색으로 변하여 있다.

신장은 퇴색되고 종대하며 홍선과 F낭은 위축되어 있다.

병계의 조직표본을 현미경으로 보면, 간장조직의 간세포 변성과 소엽간담낭의 증생 및 출혈이 보이고 간세포의 핵은 헤마톡신 에오진으로 빨갱게 염색되어 봉입체가 많이 보인다.

황색 경향이 강한 골수에서는 조혈조직이 현저히 감소되고, 지방조직으로 변하여 있다.

이러한 골수 기능의 현저한 저하로 전신성 출혈과 빈혈이 나타나는 것이다.

봉입체간염은 봄과 여름에 잘 발생한다.

4~10주령의 브로일러와 18주령까지의 채란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5~7주령의 육계에서 다발하는 경향이다.

발생 계군에서는 급폐사와 도태계증가가 보이며 그후 2~5일간은 매일 0.5~5%의 폐사율이 나타난다. 발병해서 부터 7~14일 정도에서 대개 이런 증상은 끝난다.

누적사망율은 2~30%에 달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장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병세가 악화되어 폐사율은 훨씬 높아진다.

이 바이러스는 공중의 먼지와 계분으로 오

염된 물과 사료를 통해서 전파되고 호흡기와 소화기로 감염된다.

실험적으로는 종계로부터 병아리에 수직감염되는 것도 증명되었다.

밀사로부터 접촉감염은 인정되나 계사와 계사로 전파되는 것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야외에서 특정병아리에서 이병의 발생이 동시에 생기는 것으로 보아 부화장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병아리가 모계로부터의 이행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행항체가 소실되기 시작하는 3~4주령 이후에 바이러스의 감염을 받을 경우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본병이 5~7주령경에 다발하는 것도 이행항체 소실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봉입체 감염의 병계로부터 분리된 바이러스를 다른 건강 닭에 접종하여도 자연 발생에와 같은 병변을 보기는 어렵다. 또 야외에서 IBH로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더라도 봉입체 감염의 발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침윤도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즉 봉입체 감염으로서 발병 또는 사망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는 뜻이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감보로병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지 않은 종계에서 발생된 병아리에 봉입체감염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로써 감보로병의 이행항체를 갖고 있지 않은 병아리는 양계장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감보로병바이러스의 감염을 받아 방어기능이 약화되어 IBH까지 발생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항체 생산의 저하는 감보로병 바이러스 외에도 다른 바이러스감염, 약물, 환경인자 등에 의해서도 유발된다고 본다.

4~10주령 건강닭이 갑자기 폐사하고 빈혈과 출혈증상이 보이면 IBH로 의심하고 가축위생 연구소 계역과로 가검물을 보내어 진단받는 것이 좋겠다.

IBH의심 닭을 해부해서 간장이 적갈색내

지 황색을 띠고 표면에 출혈이 보이면 거의 IBH로 추정해도 좋으나 비브리오키타, 설과제 중독, 곰팡이독, 세균독 등으로 출혈성병변과 구별하기 어려울때 간장의 병리조직 표본을 제작하여 간세포의 핵내봉입체를 확인한다.

보통 호산성의 핵내봉입체가 보이는 수가 많다.

전형적인 발생에서는 간조직은 넓게 침입당하여 간세포의 지방변성, 소엽간담관의 증생, 출혈 등을 동반한다.

현재로서는 아데노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방법은 없다. 예방적인 수단으로는 봉입체 감염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종계장, 부화장에서 병아리구입을 피하는 것 뿐이다. 본병의 유발 또는 발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되 밀사를 피하는 것에 특히 유의한다.



## 새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새 바람이 일렁입니다.  
이 바람은 구름을 몰아오고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될 것입니다.

새바람이 불니다  
이 바람은 응어리를 풀어내어  
맺힌 마음들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새 바람이 불어갑니다.  
이 바람은 찌든 불경기를 추방하고  
풍요함을 선언합니다.

세원사료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원사료(주) 천안 (2) 8001~5  
서울 (713) 2205~6